[UCI]I804:24011-200000236313

2008년 2월
교육학석사 음악교육과 학위논문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협동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조아라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협동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연구

A study on self-efficiency through cooperative learning in music class in middle school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 교육전공

조아라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협동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연구

지 도 교 수 이 한 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0월

조아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한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혜경 인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 2절 연구의 제한점 ····· 2

제 2장 이론적 배경 ····· 4
제 1절 자기효능감 ····· 4
제 2절 협동학습의 이론적 고찰 ····· 8
제 3절 선행연구 분석 ····· 12
제 4절 협동학습의 주요 학습 유형 ····· 20
제 5절 협동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유의점

제 3장 협동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 25
제 1절 음악수업에서 필요한 협동학습 ····· 25
제 2절 협동학습 수업 지도안 개발 ····· 26
제 3절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협동학습 ····· 29
제 4절 협동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사례 및 분석 ····· 32

제 4장 결론 및 제언 ····· 38

참고문헌 ····· 40

표 목 차

<표 2-1> 협동학습과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의 차이 ····· 11
<표 3-1>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5종 교과서 협동학습 현황 ····· 30

그 림 목 차

[그림 1-1] 자기 / 집단효능감의 개념 ····· 5

ABSTRACT

A Study On Self-Efficiency Through Cooperative Learning In Music Class In Middle School

Cho, A-Ra
Advisor : Prof. Han-Na Lee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self-efficiency between students through positive interaction.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elf-efficiency through cooperative learning in music class for this concrete subject.

We examined theoretically the notion of self-efficiency, the origin of self-efficiency, and the effects of self-efficiency through studying music. We also examined the notion of studying cooperatively, the features of studying cooperatively, the educational effects and considerations of studying cooperatively, the ability to apply these considerations while studying cooperatively, and the need to study cooperatively in music class.

We inferred that the origin of self-efficiency is formed by four principal reasons which are the experiences of success, indirect experiences, linguistic persuasion and sentimental awakening.

By applying Bandura's social recognition theory, we confirmed the possibility that students change their quality of life and their thoughts more creatively through self-efficiency, which is an important notion for mental health.

Music education is an encapsulated aesthetic experience. It improves individuals' musical ability and helps them develop a profound musical nature. Therefore, how various kind of musical pieces and musical activities are furnished is very important. However there are limited musical activities for students and they have different musical abilities. To solve this problem, creative activities and a cooperative learning system, such as small group activities and studying in large group, should be applied to music education.

We researched possible a system of studying to embody different methods of cooperation in music education. The goals and expectations of musical education can be reached more easily through active cooperation. Accordingly, teachers have to consider and engage students in studying cooperatively. Also, they must guide students to participate in group activities to enable students to be more proactive.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음악수업에서 협동학습을 통한 학생들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음악수업이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의 근원, 음악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효과, 협동학습의 개념, 협동학습의 특징, 협동학습의 주요학습유형, 협동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유의점, 협동학습 적용상의 유의점, 음악수업에서 필요한 협동학습 등을 이론적으로 탐구하였다.

음악교육의 본질은 '음악의 심미적 체험과 그러한 체험을 통한 창의적인 음악 능력의 향상과 풍부한 음악적 심성의 개발'로 요약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악곡과 음악활동을 제공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며 음악 교육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학교 음악 교육에서 학생들이 체험 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며, 학생들의 개인차가 현격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소집단 그룹 활동, 대집단 학습과 같은 방법을 통해 창의적 신장과 집단 구성원간의 협동 정신을 기를 수 있는 협동학습 체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음악수업에서 교수 · 학습 방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학습구조는 기본적으로 경쟁학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 교육의 경쟁적 학습구조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가져온다.

구성주의 이론에 의하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구조적 사회보다 사회구조적 사회구성 속에서 더 많은 지식이 구성된다. 사회 구조적 구성 속에서의 협동학습은 개별학습 상황보다 더 다양하게 전개되고 함께 어울려 학습함으로써 더 많은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1)]

---

1) 김원선(2003).『협동학습을 적용한 다양한 음악수업 지도안 연구』,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 2.

지금까지 협동학습에 대한 효과나 협동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효과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고, 협동학습이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보면서 협동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 중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전통학습과 비교하여 협동학습은 긍정적 상호의존성, 서로에 대한 책임 공유, 과제와 구성원과의 관계지속성 강조, 집단적 과정 등의 특징이 있다. 또한 협동학습의 운영으로 선행학습과 보충학습을 실시하여 선행학습의 결손, 학습 환경의 차이, 개별지도의 미비 등을 상호 보완하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 부여를 강화하게 된다. 이것은 학습에 전혀 흥미를 갖지 못하는 부진 학생들의 지적 학업 성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학습과정에 있어서 학습자간의 긴밀한 상호 협동 관계는 학습부진아의 소외의식 치료와 적극적인 자기인식 정립을 조장하게 되므로 생활교육이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도 방법이다.

따라서 음악수업에서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심을 갖게 되고 타인과 협동을 통해 응집력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이 연구는 음악수업에서 협동학습을 통해 융통성 있는 학습활동으로 학생들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극대화시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문제와 제한점

이 연구는 음악수업에서 협동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수업에 필요한 협동학습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협동학습 수업 지도안 개발을 통해 음악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협동학습 수업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협동학습에 대하여 알아본다.

넷째, 협동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사례 및 분석을 통해 협동학습 수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음악과 수업의 협동학습에 적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에서와 같이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다른 교과수업에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협동학습을 통해 나타난 결과의 사례들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므로 또 다른 대상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는 협동학습의 여러 모형 중에서 음악과 협동학습 선행연구에서 개발되었던 모형인 JigsawⅡ, Pair's check의 2가지 모형만을 이용해서 지도안을 개발하였으므로, 단독으로 한 협동학습 모형이나 다양한 형태의 협동학습의 모형으로 한 경우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 이론은 Bandura(2001)의 사회인지이론에 바탕을 두는 이론으로 인간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인 자기효능감을 통해 삶이 질적으로 혁신되고 창조적인 거듭남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즉 인간의 좌절과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젊은이와 같지않은 노인이 되어서까지도 효능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노년기를 절망하지 않게 해 준다.[2)]

Bandura(2003)는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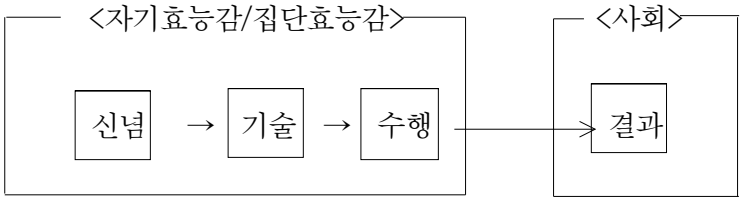
즉,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효과를 산출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고 개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4)]

학습자의 효능감 및 포부를 형성하고 수행의 의미와 방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는 청소년을 교육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우수한 학교교육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심리사회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사고하고, 스스로를 동기화시키며,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과정으로 인지적 과정, 동기적 과정, 정서적 과정, 선택적 과정이 있다. 이러한 네 개의 과정들은 인간 행동의 계속적인 조절과정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기 보다는 함께 상호작용한다.

---

2) A. Bandura(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박영신,김의철(역), 서울:교육과학사, p.15.
3) A. Bandura(2003).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김의철,박영신,양계민(역), 서울:교육과학사, p.28.
4) 노안영, 강영신(2005).『성격심리학』, 서울:학지사, p. 410.



출처: 김의철, 박영신(1999)

[그림 1-1] 자기/집단 효능감의 개념

Bandura(2001)의 사회인지이론에 바탕을 두는 자기효능감 이론은, 인간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인 자기효능감을 통해 삶이 질적으로 혁신되고 창조적인 거듭남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즉 인간의 좌절과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예컨대 Bandura(2001)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어려움과 좌절을 대처하는 효능감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극복방안이다"라고 역설한다. 또한 '재발의 예방(prevention)뿐만 아니라 재발의 관리(management)'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함으로써 약한 인간에게 그래도 노력해야 겠다는 의지를 유발시켜 준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젊은이와 같지않은 노인이 되어서까지도 효능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노년기를 절망하지 않게 해준다. Bandura(1997)는 심리학자로서 섬세한 통찰력을 통해 Rubinstein이 90세가 넘어서도 세계적으로 탁월한 피아니스트로 활동할 수 있었던 예를 들고 있다. "첫째로, Rubinstein은 자기의 레파토리를 줄이고 적은 수의 작품을 연주하였다(선택). 두 번째로, Rubinstein은 적은 수의 작품을 더 자주 연습하였다(최적화). 세 번째로, Rubinstein은 빠른 움직임 전에는 연주 속도를 늦추었고 따라서, 빠른 움직임에서 속도의 인상을 증진시키는 대비를 나타내었다(보상)." 이와 같이 선택적 최적화와 보상적 자기조절 전략의 채택은 정보처리 기술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효능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5)]

5) A. Bandura(2001). 전게서 p. 15.

2. 자기효능감의 근원

자기효능감은 정보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한 근원(sources)으로부터 형성된다. 즉, 능력의 지표로 제공되는 성공경험, 유능감의 전이 및 다른 사람의 성취와 비교를 통해 효능감을 변화시키는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과 우리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연합된 유형의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능력강도 기능장애에 대한 취약성을 부분적으로 판단하는 데서 오는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이다.

성공경험들은 효능감 정보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근원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성공을 하기위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신뢰로운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리적 경험(vicarious experiences)은 효능감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정보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수행된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델링(modeling)은 개인효능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도구로 제공된다.[6)]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은 자기효능감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어질 경우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과제 수행에 대한 피드백이나 설득자의 신용도와 전문성, 자신의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과 불일치의 정도를 통해 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각성은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에 의해 전달되는 신체적 정보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각성의 원인과 각성의 수준, 해석적 편견, 자기효능감 판단에 대한 기분의 영향 등으로 자기효능감을 증감시킬 수 있다.[7)]

3. 학생들의 인지적 자기효능감

효능감이 인지 능력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적응하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

6) A. Bandura(2003). 전게서 pp. 184-223.
7) 오윤경(2005). 『협동학습을 통한 리코더 수업에 있어서의 자기 효능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 21-22.

사용된다는 것은 과거보다 상당히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Collins(1982)는 어린이를 수학능력에 따라서 세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에서 자신의 효능감을 높거나 낮다고 판단한 어린이들을 선발한 이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주고 해결하도록 했다. 각 능력수준 내에서 강한 효능감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은 능력수준은 같지만 자신의 효능감을 의심하는 어린이보다 잘못된 전략을 재빨리 버렸고,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로 결정했고, 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였다. 자신의 학업적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과적 귀인은 수학수행과 관계가 없었다. 효능감은 수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 태도를 예언했으나 실질적 수학능력은 이를 예언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기술을 최대로 사용하기 위한 개인효능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8)]

Bouffard-Bouchard, Parent와 Larivée(1991)는 효능감이 인지적 수행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몇 가지 자기-조절 과정들을 확인했다. 인지적 능력이 우수한가 평균수준인가와 상관없이 효능감이 높은 어린이들은, 능력은 같지만 효능감이 낮은 어린이보다 개념적인 문제들을 더욱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각 능력수준에서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작업 시간을 더 잘 관리했고 보다 꾸준했으며 성급히 해답을 고치려하지 않았다.

성공하기 어려울 때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반면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빨리 포기한다(Bandura & Schunk, 1981). 동기적 연결은 임의적 수단에 의해서 기술은 변화되지 않은 채 효능감이 변화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렵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지속하는가를 관찰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진다. 효능감이 향상되면 사람들은 더욱 인내하게 된다.

학업성취에 있어서 효능감은 매개적 역할을 한다. 인지 능력의 수준, 사전의 교육적 준비와 성취, 성별, 그리고 학업활동에 대한 태도와같은 요인들이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부분적으로 이 요인들이 효능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에 달려있다. 이 요인들이 효능감을 더 많이 변화시킬수록 이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진다. 인지적 효능감이 학업 수행에 매개적 영향들을 분석할 때에도 반복하여 나타난다.[9)]

---

8) A. Bandura(2001). 전게서 pp. 73-74.
9) 상게서 p. 76.

4. 음악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효과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의 사고 및 행동의 변화는 동기(Motivation)와 관련이 깊다. 동기는 학생이 처한 사회적 · 문화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심리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W.White는 심리적 성취동기로 '자신감과 능력'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감'이 첨가될 때 학습자는 더욱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고 한다.[10] 또한 R. M. Gagné(1974)의 학습원리에서 효율적인 학습에는 동기가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하며 자극, 흥미, 목표, 지식, 보상 등을 동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듯 학습에 있어서 동기는 외재적 · 내재적으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내재적 동기에 해당이 되는 자기효능감은 음악학습에 있어 정보의 근원인 실제 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제공해서 긍정적인 학습동기가 표출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다.[11]

제 2 절 협동학습의 이론적 고찰

1. 협동학습의 개념

협동학습은 협동적 목표 구조를 수행하기 위한 교수-학습전략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의 다른 학생들을 경쟁의 대상 또는 자신과 무관한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학생의 목표 성취를 집단 내 다른 학생들의 목표성취에 기초하도록 집단을 조직하는 교수-학습 전략이다.(Johnson &Johnson 1975). 또한 협동학습은 학생 자신의 학습 효과와 동료의 학습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하여 학습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소집단의 학습 방법이다.

Slavin(1980)은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학습방법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그 집단의 성적에 기초를 둔 보상과 인정을 받는 교실 상황에서의 학습 방법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

10) 이홍수(1995).『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서울:세광음악출판사), pp. 86-87.
11) 오윤경(2005). 전게서 pp. 22-23.

Piaget(1965)는 협동학습을 단순한 학습방법이 아닌 인간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학습방법으로 보고 있다.

Sharan &Sharan(1976)은 협동학습을 상호의존적인 개인들의 보다 큰 목적 또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학습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Bartal & Gesew(1980)는 협동을 개개의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통합된 방식으로 공통의 수단을 채택하거나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통합된 방식으로 노력함으로써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이 하나의 과정을 수행하는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Johnson &Johnson (1975)은 협동학습의 본질은 공동의 업적을 다루기 위하여 집단 목표를 할당하고, 시험에서 집단의 평균성적을 높이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들의 성적의 양과 질에 근거하여 집단 전체에 보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논의들을 정리하면 협동학습이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개인들이 서로 협의하에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방법으로 학습과 교수활동을 동시에 포함하여 과제의 특정부분을 수행하고 공동으로 보상을 받는 교수-학습전략이다. 또한 학습자 개인의 목표들을 공통적 목표 또는 공동의 관심으로 집약시키고 상호 협동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학업성취수준을 높이게 하는 교육 방법이다. 즉, 협동학습의 운영으로 선행학습과 보충학습을 실시하여 선행학습의 결손, 학습 환경의 차이, 개별지도의 미비 등을 상호 보완하고 학습자의 학습동기부여를 강화하게 된다. 이것은 학습에 전혀 흥미를 갖지 못하는 부진 학생들의 지적 학업성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학습과정에 있어서 학습자간의 긴밀한 상호 협동 관계는 학습부진아의 소외의식 치료와 적극적인 자기인식 정립을 조장해주게 됨으로 생활 교육이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도 방법이다.

협동학습은 두 가지 방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사전준비단계에서부터 분업-학습해야 할 과제를 여러 개로 분리해서 각자 그 내용만 분담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 착안점은 학생일지라도 각자 다른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즉 각 구성원에게 학생과 교사의 두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협동학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원리를 이규은(1987)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환의 원리를 들 수 있다.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인지하고 서로 교환 활동을 통해서 학습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은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알지는 못하지만 알기를 원하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교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과 학습의 교환이 몇 사람의 인간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 활동을 조직화해서 확실한 계획에 기초를 둔 준비를 서두른다면 그 효과도 더욱 높일 수 있다.

둘째, 분담의 원리를 들 수 있다. 학습구성원은 각자 교재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학습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책임을 서로 분담하는 것이다. 학습구성원은 각자 분담한 부분을 학습하고 가르쳐 전원이 분담한 내용이 서로 일치되게 결합된다면 그 학습 내용에 대한 전체적 지식이 전원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다.

셋째, 결합의 원리를 들 수 있다. 학습 구성원에 의한 상호학습은 그림 맞추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필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방법의 원리는 그들을 전부 표면에 내세워서 이해하고 결합시켜 전체를 하나로 통합시킴으로써 의미를 가지게 하자는 원리이다.

넷째, 상호 수업의 원리를 들 수 있다. 학습 구성원에 의한 상호수업의 원리로 학습 구성원 간에 서로 가르쳐주는 것이다. 분담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호 교수활동을 통하여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이다.

다섯째, 개별화의 원리를 들 수 있다. 학습자 개개인에게 학습과 교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학습의 원리이다. 학습자의 개별적인 능력이나 성향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다를 뿐 아니라 학습 내용을 여러 학습자들에게 경험하게 했을 때 그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내는 것이다.[12)]

2. 협동학습의 특징

교육현장에서 협동학습은 소집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과 비슷하다. 그러나 Johnson(1984)등은 협동학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과 구별된다고 하였다.

---

12) 김은순(2001).『영어과 협동학습이 성취목표 지향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 6-8.

<표 2-1> 협동학습과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의 차이

협동학습	전통학습
긍정적 상호의존성 개별적 책무성 구성원의 이질성 공유하는 리더쉽 서로에 대한 책임 공유 과제와 구성원과 관계지속성 강조 사회적 기능을 직접 배움 교사의 관찰과 개입 집단적 과정	상호의존성 없음 개별적 책무성 없음 구성원의 동질성 한사람이 리더가 됨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과제만 강조 사회적 기능을 배우지 않음 교사는 집단의 기능을 무시함 집단과정이 없음

<표 2-1>의 협동학습과 전통적인 학습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차이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는 개별적 책무성과 책임 공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학습은 모든 구성원의 성취에 기초하여 그 집단이 평가받기때문에 자신스스로의 성취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의 성취에도 도움을 주고 격려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소집단학습에서의 개인은 다른 구성원들의 성취에 무임승차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협동학습의 구성원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두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도록 서로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협동학습은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과도 구별이 된다.

협동학습은 여러 모형에 따라 다양한 차이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한 학급을 2-6명의 소집단으로 재구성한다. 이때, 소집단 구성은 이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이질성은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능력에 따른 동료 교수 활동이나 관점 차이로 인한 활발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교사가 각 집단이 학습할 세분화된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학생들의 학습목표에 대한 인식도가 높다. 협동학습에서는 소집단에게 학습목표를 과제의 형태로 분명히 제시한다. 또한 제시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은 소집단별로 학습목표를 분명히 알고자 함으로 학생들의 학습 목표 인식도가 높아진다.

셋째, 개개인 학생에게 개별적 책무성이 부여된다. 개별적 책무성은 개인이 얻은 점수

를 집단점수에 반영하는 방식과 집단이 수행해야 할 학습과제를 분업화하는 두 가지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넷째, 집단은 긍정적인 상호의존적 학습 구조를 가진다. 협동학습에서는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동료들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려하는 활발한 긍정적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다섯째, 집단 내에서는 협동적 환경과 협동적 보상체재가 마련된다. 소집단간 경쟁을 도입함으로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소집단 구성원들이 학습 동기를 우발하는 내적 보상이 제공되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촉진한다.

여섯째, 성공 기회가 균등하다. 집단 구성원 누구나 능력에 관계없이 집단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있다.

일곱째, 과제의 세분화를 통해 소외되는 학생이 없게 한다. 소집단 내부 각 구성원들이 과제를 분담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여덟째, 정보자료원이 다양하다. 전통 수업에서는 유일한 정보자료원이 교사였지만 협동학습에서는 학생 모두가 정보자료원이 될 수 있다.

아홉째, 소집단 활동 반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 활동에 대비한다.

마지막으로 협동학습은 인지적 목표와 아울러 정의적 학습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협동학습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정보 처리 기능, 토론 및 의사표현, 의사결정력 등의 사회적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참여의식과 협동심 등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13)]

제 3 절 선행연구 분석

이 연구에서는 협동학습에서의 자기효능감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오윤경(2005)은 『협동학습을 통한 리코더 수업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 연구』에서 협동학습을 적용한 리코더 수업이 학생들의 학업수행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음을 연구에 밝히고 있다.

---

13) 상게서 pp. 8-11.

김원선(2002)은 『협동학습을 적용한 다양한 음악수업 지도안 연구』에서음악 교육에서 협동학습 전략을 활성화함으로써 음악교육이 기대하는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고, 음악과 협동학습의 다양한 모형과 전략을 현장에 적용해봄으로써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을 파악하여 개개인의 음악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은순(2001)은 『영어과 협동학습이 성취목표 지향에따라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협동학습은 협동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영어 학업성취에도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유혜숙(2000)은 『중학교 과학 실험수업에 적용한 Jigsaw 협동학습의 효과』에서 협동학습이 학업성취도와 탐구 능력 및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선경(2001)은 『협동학습이 여중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영어 과목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협동학습이 중 · 하위권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연구결과에 밝히고 있다.

김강식(2003)은 『STAD협동학습이 동기요인에 따라 영어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들이 협동학습을 통해 향상된 학업성취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

제 4절 협동학습의 주요 학습 유형

1. 과제분담학습 I (Jigsaw I)

이 학습은 학교의 인종차별로 문제가 된 텍사스주의 어스틴(Austin) 학교 관리들을 돕기 위해 심리학자인 엘리옷 엘론슨(Elliot Aronson, 1978)에 의해 개발되었다. Aronson(1978)은 전통적인 경쟁학습구조의 교실환경을 협동학습 구조로 바꾸기 위해 첫째, 한 전문가와 다수의 청강자(학습자)로 되어있는 전통적인 학습구조를 약 5-6명 정도로 구성 된 소집단 협동학습 구조로 바꾸었다. 이 구조에서 성공은 소집단 내에서 협동의 결과로만 얻어지기때문에 학습자는 교사의 시선을 끌기보다는 동료들에게 관심을 갖게된다. 둘째, 동료들과 협동학습을 할 때 어떤 누구도 집단 내 다른 동료의 도움 없이는 학습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즉 소집단 내 다른 각 개인은 집단구성원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Jigsaw 모형의 전형적인 수업 절차는 세 단계이다.

가. 모집단 활동 (home team)

처음에 교사는 한 단원을 수업 주제를 선택하여 이번 수업의 계획의 대강을 설명해준다. 그런 다음 5-6명으로 구성된 모집단에 몇 가지의 하위주제가 질문의 형식으로 적혀있는 전문가 용지(expert sheet)를 배포한다.

이 하위주제들을 소집단 구성원 각자에게 하나씩 할당되게 하며 각 주제를 맡은 구성원은 그 하위주제에 한하여 전문가가 된다. 모집단에서 학생들은 하위주제 외에 각자가 소집단 내에서 해야 될 역할들 즉, 리더나 기록자와 같은 역할을 정한다.

나. 전문가 활동 (expert team)

각각의 소집단에서 동일한 주제를 맡은 각 소집단의 전문가끼리 따로 전문가 소집단을 형성하여 함께 학습활동을 한다. 만약 한 학급의 소집단이 5개라면 전문가별로 모인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소집단의 수도 5개가 될 것이다.

학생 수가 많아서 소집단이 8개라면 8명의 전문가가 전문가 집단을 이루어야함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소집단 학습을 하기가 어렵다. 이때는 8개 소집단을 두 부류로 나누어 각각 4명씩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 활동은 주로 그 하위주제를 공부한 다음 각자의 모집단에 돌아가서 모집단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핵심내용을 전달해 줄 것인가를 중심으로 토론하게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전문가 소집단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의 요점과 범위를 안내해주는 자료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다. 모집단의 재소집 (home team reconvene)

전문가 집단의 활동이 끝났으면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소집단내의 다른 동료들에게 전수한다. 다른 동료들은 자기가 전문으로 선택한 것 외에는 전혀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영역은 전적으로 동료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 과정이 끝나면 전체과제를 범위로 개인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학습 형태를 Jigsaw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모집단이 전문가집단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Jigsaw Puzzle(조각난 그림 끼어 맞추기 퍼즐)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결국 모집단과 전문가집단에서 학생들은 활발한 협동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과제분담학습Ⅱ (Jigsaw Ⅱ)

Jigsaw Ⅱ모형은 개념중심의 학습내용을 가르치는데 이용되며 교재의 완전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방법은 직소Ⅰ의 방법과 같으나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별 형성 평가를 받게 되고 이때 개인이 받은 향상점수가 팀의 점수가 되는 것이다.

팀의 학생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여 동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직소Ⅰ 보다는 상호의존성을 높인 모형이다.

이 모형의 장점은 각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성이 뚜렷하고 학생들 각자가 자기가 맡은 소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과 긍지감을 갖게 되고 이질적인 학생들의 교우관계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있다. 단지 과제가 학문의 위계성이 강한 지적인 것일 경우 부진한 학생은 자신이 맡은 소주제를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소주제를 나누어 줄 때 시간과 노력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3. 자율적 협동학습 (Co-op co-op)

Spencer Kagan(1968)이 개발한 수업모형으로 한 학급에서 정한 전체 과제를 여러 소그룹으로 구성된 학급 전체가 협동으로 해결하기위하여 소그룹별로 협동학습을 하는 형태이다.

자율적 협동학습(Co-op co-op)모형은 학생자신이 그들의 학습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자신과 동료들의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형이다. 고차적 인지과정의 학습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기본 능력의 학습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자율적 협동학습(Co-op co-op)모형은 한 학습에서 정한 전체 과제를 여러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급 전체가 협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집단별로 협동학습을 하는 독특한 학습 형태로서 학생들은 전체 학급에서 교사가 제시한 주제에 관해 소주제로 나눈다. 아주 작아진 소주제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소집단에서 각자가 학습해온 과제로 토의하여 전체에게 발표함으로써 전체학급이 과제를 해결한다. 즉, 전체의 협동을 위해 협동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모형의 절차로는 첫째, 교사와 학생 간에 학습할 단원에 대하여 토의하고 학습문제를 탐색한다. 둘째, 교사는 3-6명의 이질적인 팀을 구성해 주거나 학생 스스로 팀을 구성한다. 셋째, 집단의 필요에 따라 조장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때 학생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자각 공동생활에 대한 참된 의식, 의사전달 훈련, 신뢰의 구축, 개인차의 존중 등을 집단과정을 통해 인식하게 된다. 넷째, 팀의 학습주제를 선정한다. 다섯째, 팀 내에서 자기가 맡고 싶은 소주제를 선택한다. 여섯째, 소주제에 대한 학습준비를 한다. 일곱째, 소주제의 학습 결과를 팀 내에서 상호 작용해 피드백을 하여 보다 명확하게 해주거나 혹은 노트정리, 비평, 통합역할을 취한다. 여덟째, 개인들의 보고물을 종합하여 팀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아홉째, 팀은 학급 전체에 보고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열 번째, 평가로써 팀 조력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와 교사가 학생들의 보고서를 평가하고 모든 학생들이 각 팀의 보고서를 평가하게 한다. 평가 단계에서 팀 동료에 의한 팀 기여도 평가, 교사에 의한 소주제 학습 기여도 평가, 전체 학급동료에 의한 팀 보고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모형의 장점으로는 학습활동의 준비, 활동과정,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반면에 학생의 역할이 극대화된다. 또, 팀간에 경쟁을 하지 않는 순수한 협동체제이다. 그러나 저학년에서는 적용하기 힘들고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힘든 단점이 있다.

4. 함께 학습하기 (Learning Togrther: LT) 모형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데이비드와 로저(David Johnson&Roger Johnson, 1975)에 의해 개발되어 존슨협동학습으로도 부른다.

존슨 형제들에 의해 개발된 수업 모형인 이 모형은 협동학습 구조에 기초하여 성공적인 수업의 구성요소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결과를 상세화하고 적절한 수업목표를 설정하는 것. 둘째, 학습 주제에 따라 일제식 구조, 개별화 구조, 경쟁식 구조, 협동학습 구조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 셋째, 학습을 촉진하는 수업자료와 학습도구를 활용하는 것, 넷째,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수업분위기를 만드는 일. 다섯째, 수업과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 여섯째, 수업결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있다.

이 방법은 2-6명의 이질적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어진 과제를 협동적으로 함께 수행한다.

함께 학습하기(Leaning Togrther: LT)모형은 집단구성을 능력수준이 다른 6-10명으로 편성하고 과제는 집단별로 부여하고 평가 및 보상도 집단단위로 하게 된다. 시험은 개별적으로 시행하나 성적은 소속 된 집단의 평균점수를 받게됨으로 자기 집단 내 다른 학생들의 성취 정도가 개인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또 집단 평균 이외의 집단 내 모든 구성원들이 정해진 수준 이상에 도달했을 때 각 집단 구성원들에게 보너스 점수를 주기도 한다. 즉, 학생들의 협동적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줌으로서 협동을 격려하고 조장한다.

함께 학습하기 모형은 18단계의 절차로 기술되어있으며 단계가 많은 활용의 융통성이 높은 방법으로 알려져있다.

이 모형의 장점은 모형이 매우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 융통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며 팀 간의 순수한 협동뿐 아니라 팀 간 경쟁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자신의 교육관이나 학습의 특성 등에 비추어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의 협동적 학습기능들이 크게 증진 될 수 있는 모형이긴 하지만 모형이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나 안내를 얻기 어렵고 학생들에게 협동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5. 팀 성적 향상을 위한 협력학습 (Student Team Achivement Division: STAD)

보상중심협동학습의 유형으로는 팀 성적 향상을 위한 협력학습(STAD)을 들 수 있다.

보상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그룹 내에서 협동을 유발시켜 학습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학생 팀 성취보상법(Student Team Achivement Division: STAD)은 기본 기능의 습득이나 지식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STL프로그램의 주요한 요소인 “집단보상, 개별적 책무성, 성취결과의 균등분배”라는 협동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팀은 4-5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학습방법으로는 교사가 먼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습할 내용을 소개하면 학생들은 4- 5명씩 한 팀을 이루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동료의 학습을 지원하고 교정해준다. 다음에 학생은 개인으로 형성평가를 받고 각 학생은 과거점수와 비교하여 향상점수를 받게되며 개인의 향상점수를 합계하여 집단의 총 점수로 환산한다. 다음에 향상점수와 팀 점수를 공개하고 정한 규칙에 따라 집단 보상을 한다. 이때 최고 득점자와 팀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에게 보상한다. 학기말 성적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득점을 부여하나 때로는 향상점수팀 점수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 모형의 장점으로는 다른 모형에 비해 적용하기가 간편하고 특히 다인수 학급에서도 적용하기가 용이하고, 향상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동기 유발과 참여의식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6. 토너먼트 게임식 팀 학습(Teams Games Tourarment: TGT)

토너먼트 게임식 팀학습(Teams Games Tourarment: TGT)모형은 기본적 기능의 습득과 이해력, 적응력의 신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습방법이다. 학습의 전개 절차는 STAD와 유사하거나 팀별로 학습이 끝나면 각 팀에서 성적이 우수한 3명을 선발하여 토너먼트 게임에 참가하고 다음의 우수자 3명이 두 번째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얻은 각자의 점수가 팀의 점수가 되고 향상점수는 이용하지 않는다. 이 모형의 장점으로는 토너먼트 테이블은 개인의 이전 성적에 따라 변하므로 학습동기가 유발 될 수 있고 능력별 팀 학습에 비해 채점의 방법이 보다 공정하다는 점에 있다. 단점으로는 학생들의 능력과 성적이 지나치게 공개되고 문항제작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 학습의 절차로는 수업목표제시, 팀 내 개별학습, 팀 내협동학습, 결과도출, 보고서 작성, 전체보고 협의, 교사의 정리 학습, 토너먼트 게임, 팀 점수산출, 우수팀 게시와 보상으로 이루어진다.

7. 팀 보조 개별화 학습 (Team Assisted Individualization: TAI)

팀 보조 개별화 학습(Team Assisted Individualization: TAI)모형은 산수과 개발학습 프로그램에 적용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료와 교환하여 정답을 채점하는 방법이다. 팀의 구성원들이 각자 학습하는 동안 교사는 15-20분간 개별학습을 하게되고 팀별로 매주 1회씩 평가점수를 받게되고 성취목표를 달성한 팀은 보상을 받게 된다.

팀 보조 개별화 학습(Team Assisted Individualization: TAI)모형은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팀 내에서의 성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학생 수일 경우 교사 한 사람의 노력과 시간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8. 집단 탐구법 (Group Investigation: GI)

집단 탐구법(Group Investigation: GI)모형은 민주적 교수-학습 방법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도에서 생겨났다. 듀이(John Dewey, 1985)는 학교에서의 교실을 하나의 축소된 민주사회로 조직할 것을 권장하고 학생이 사회체제의 개발에 참여하고 경험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과학적 방법을 인간사회 개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해야 하며 이것이 민주사회에서 시민을 준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지식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것을 얻는 과정도 사회적이며 그 바탕은 민주적 수업환경에 기초하여야한다는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GI(Group Investigation: GI)모형 중에 Herbert Thelen의 모형이 널리 알려져있다. 그는 교실은 커다란 사회와 같으며 교실에서는 하나의 사회질서와 교실문화를 가지고있으며 학습자들은 거기서 형성된 생활방식에 관심을 갖게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수업모형은 사회가 필요로하는 타협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며 타협의 과정을 통하여 학문적 지식을 배우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하려는 것이다. Thelen에 의하면 집단적 방법으로 탐구하여야하는 이유로 탐구에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 외

에 감정적 면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의 견해들과 대조시키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때 교사의 역할로는 상담자, 자문자, 친절한 비평자의 중요한 세가지 역할 외에 과업, 집단활동, 개인의 학습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하여 개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집단을 촉진하고 집단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교육적 활동에 집중되도록 개입하되 교사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GI(Group Investigation: GI) 모형은 학업 성취는 물론 높은 인지기능향상과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어있고 이 모형을 사용하는 교사는 학생의 학습동기를 자극하거나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거나 학생의 학습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해주거나 개인의 특별한 활동에 대한 개인적 칭찬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단점으로는 하위주제를 배정할 때 하위학습자들의 역할과 기능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협동학습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형의 학습절차로는 먼저 학생들이 하위 주제를 정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습목표와 과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교사의 주의 깊은 관찰과 도움을 받으며 학생들은 각자 맡은 하위 주제에 대한 활동을 한다. 각자의 활동내용을 정리하고 팀 전체가 과제를 종합하여 분석한 뒤 전체에게 보고하게 한다. 평가는 각 집단이 전체학습에 공헌한 기여도를 평가한다.[14)]

9. 짝 점검 (Pair's check)

짝 점검 (Pair's check)은 두 명이 짝으로 구성하여 한명은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 명은 짝의 활동을 코치하고 격려한다. 다음 과제에서는 서로의 역할을 바꾸고, 짝 활동이 끝나면 모둠이 모여 문제를 해결한 결과에 대한 토의를 한다.

두 명의 짝이 서로 의견이 같을 때는 긍정적인 강화를 해주고, 의견이 다를 때는 토의를 통해 일치점에 이르도록 한다. 짝 점검을 통해 '칭찬'이라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특징이 있다.

---

14) 김원선(2002). 전게서 pp. 10-19.

제 5 절 협동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유의점

협동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교육의 두 가지 목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즉, 협동학습은 인지적교육 목표와 정의적교육 목표 달성의 효과성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경쟁 학습, 개별 학습과의 효과성 비교로써 이루어졌다. 인지적목표와 정의적목표의 두 가지 방향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지적영역에서의 교육적 효과

협동학습의 인지적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쟁이 있으나 많은 연구에서 경쟁학습과 개별학습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ichaels(1997)이나, Kniep & Grossman(1997)은 경쟁적 학습방법이 협동적 방법보다 더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였다고 하였고, 이동원(1990)의 실험논문에서도 협동학습 유형과 경쟁적 학습 유형간에 학업 성취의 효과에서 차이가 없다는 실험 결과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Johnson(1981)은 121편의 협동학습과 관련있는 연구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 협동학습의 경험은 모든 연령집단, 능력수준, 학습과제 등에서 개별학습보다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slavin(1990)의 보고에 따르면 분석 대상이 된 총 68개의 실험 중에서 72%가 협동학습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학업 성취도 수준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약 16%의 연구는 양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혔고, 12%만이 비교 집단이 실험 집단을 앞선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각 모형 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STAD 모형은 약 86%, TGT는 75%, TAI는 100% GI는 60%, LT(learning together)는 56%로 나타났으며 Jigsaw의 경우는 25%만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여러 논문을 분석하여 김원겸은 다음과같은 협동학습의 인지발달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논의하였다.

첫째, 학습 과제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경쟁구조보다는 협동적목표 구조가 더 효과적이다. 협동학습이 경쟁학습보다 학업성취 수준을 높여주었다.

둘째, 협동적목표 구조 하에서 문제 해결 학습을 할 경우에 문제해결에 우수한 방법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태도를 아울러 배운다.

셋째, 협동적목표 구조 하에서의 토론은 기억과 정보의 재생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

넷째, 문제 해결 상황에서의 창의성은 협동적목표 구조 하에서 더 발휘되며 아울러 발산적 사고도 활발해진다.

다섯째,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협동적목표 구조 하에서 성적에서 더 큰 이득을 본다.

여섯째, 단순한 기능학습 과제에서는 협동학습보다 경쟁학습 전략이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문제해결학습과제, 위계성이 있는 과제에서는 협동학습이 효과적이다. 즉, 문제해결학습과제를 학습시킬 때 협동학습 전략을 적용하면 학생들은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동하는 방법, 문제 해결하는 방법과 과정, 다른 학생들과의 의사 교환하는 방법들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2. 정의적 영역에서의 교육적 효과

Piaget(1965)는 언어, 가치, 규칙, 도덕, 상징체제와 같은 사회임의적 지식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여러 학자들이 정의적교육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협동적 활동의 활용을 주장하였다.

정의적영역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감정, 태도, 가치관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의 협동학습의 효과에 대한 여러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협동학습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협동학습은 학습 방법 즉,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동료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인간의 정의적특성 중 핵심적인 특성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둘째, 협동적목표구조 하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친절하며 서로 도울 필요가 있다는 등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따라서, 또래 집단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협동학습을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

를 맺고 긍정적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교사나 동료들에 대한 태도는 협동적 수업상태가 경쟁적 수업상태에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형성되며, 동료와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

넷째, 협동적목표 구조는 학생들의 종교적 · 인종적 능력의 고하, 빈부의 차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다섯째,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인성의 변화와 인성의 변화와 형성에 도움을 준다.

3. 협동학습 적용상의 유의점

협동학습을 교실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교과를 고려한 적절한 협동학습모형 선택이 중요하다. 협동학습은 국어, 수학, 사회, 언어, 과학 등 여러 교과 영역에 걸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모형에 따라 특정 교과와 목표 영역에 특히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협동학습을 도입할 때는 각 모형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목의 특성과 수업목표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야한다.

둘째, 학습자의 특징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없다. 효율적인 소집단을 구성하기위해서 학습자 개개인의 성취수준 뿐 아니라 태도, 인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한다. 이는 각 집단에 구성원을 적절히 배정하여 협동의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집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집단의 크기와 집단 구성 방법을 고려해야한다. 집단의 규모가 크면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이 주는 이점이 있다.

집단의 크기는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학습 학생 수와 학교의 물리적 시설을 감안하여 구성하되 6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습 집단 구성 방법을 동질 집단으로 구성할 것인지 이질 집단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여러 연구결과와 교육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능력, 성, 사회 계층 등에 있어 이질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협동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협동하는 사회적 기능을 안내하는 일이다. 교사는 우선, 학습과제 해결에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며 같은 조 학생 모두 과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학습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 간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학습 도중 교사는 상담자 역할만 수행하며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할 때만 질문에 답을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이 끝난 후 개인별 평가와 집단별 보상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협동학습에 모든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적절히 구조화해야한다. 즉 개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참여하고 학습하는데 대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섯째, 협동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상호의존적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한다. 즉 협동학습에서는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 교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협동학습을 통해 상반된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차적 인지발달을 학생들에게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15]

15) 김은순(2001). 전게서 pp. 17-21.

제 3 장 협동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제 1 절 음악수업에서 필요한 협동학습

협동학습은 비록 음악과 고유의 교수-학습 방법은 아니지만 음악적 경험과 음악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교육 목표와 관련 지어 볼 때 음악과 수업에서의 그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1995년 나탈리(Di Natale)는 음악과의 연주수업에서의 협동학습의 적용을 제시하였으며, 1994년 바로쉐(Baloche, L)는 초등학교 4학년 음악 수업에서 협동학습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켰다고 하였다.[16)]

음악수업에서 협동학습을 적용하는데 있어 교사와 학생의 역할은 기존의 수업과 달리 협동학습에서의 교사는 수업의 중심적 존재가 아니며, 협동학습의 원리와 방법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협동학습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충분히 훈련시켜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집단과정을 관찰하여 협동학습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계속해주어야 한다.

협동학습은 다양한 전략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음악 학습에서 협동학습의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그들은 피상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음악적인 내용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음악학습에서 협동학습 체제가 필요한 경우 음악학습에서 협동학습의 적용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과제가 상위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일 때 협동학습의 적용은 효과적이다.

불롬(Bloom, B. S)의 인지적 영역의 교육목표는 다시 적용, 분석, 종합, 평가력과 같은 상위인지 영역과 지식, 이해와 같은 하위인지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상위인지 학습내용은 가네(Gagné, R. M, 1974)의 학습위계에서 문제해결력의 학습유형과 같은 것으로 이는 학습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력하며 논의와 논쟁 등의 활동과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둘째, 과제가 고차적이고 복잡한 문제해결을 요구할 때 집단의 노력에 비해 효과적이

---

16)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Ⅳ』, 서울:대한교과서 주식회사,1999. p.132.

다. 창작의 경우에는 개인 혼자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모둠별로 공동창작을 한다면, 또는 외우기 힘든 음악사를 모둠 구성원들이 역할극으로 꾸며서 한다면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생기고 학습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집단구성원들이 특성이나 학습능력 등에서 이질적일 때 협동학습의 적용은 효과적이다. 음악과 수업의 경우 수준과 선행의 차이가 많으므로 학교에서의 협동수업은 더더욱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정의적 영역의 학습을 위해서는 협동학습 체제가 보다 효과적이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을 보면 협동학습의 경험들은 자아존중감을 높여줌과 동시에 교우관계를 증진시켜주며, 보다 긍정적이고 원만한 교실 분위기를 가져온다.[17]

제 2 절 협동학습 수업 지도안 개발

협동학습 지도안을 7학년 교과서의 '아름다운 나의 벗'으로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1. 1차시 본시학습 지도안

<table>
<tr><td>학습
주제</td><td colspan="3">아름다운 나의 벗</td><td>차시</td><td>1/2
차시</td></tr>
<tr><td rowspan="2">학습
목표</td><td>음악적
목표</td><td colspan="4">· 다장조의 음계, 주요 3화음, 지휘법, 형식을 알 수 있다.</td></tr>
<tr><td>협동학습
목표</td><td colspan="4">·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급동료와 과제를 공유할 수 있다.</td></tr>
<tr><td>협동
학습
구조</td><td colspan="5">Jigsaw Ⅱ(과제분담학습)</td></tr>
<tr><td rowspan="2">수업
단계</td><td rowspan="2">학습
내용</td><td colspan="3">교수-학습활동</td><td rowspan="2">자료
및
유의점</td></tr>
<tr><td colspan="2">교사</td><td>학생</td></tr>
</table>

17) 이경미(2000). 『음악수업의 협력적 개별화 방법연구』,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pp.29-33.

도입	전시 학습 확인	이전 시간에 배운 제제곡을 다같이 제창하고, 이해영역의 부분을 질문한다.	다같이 제창하고, 질문에 대답한다.	연주 CD를 통해 대리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모둠 구성	4명으로 구성된 모둠의 구성원을 확인한다.	자신의 모둠인지 확인한다.	
	음악 감상	아름다운 나의 벗 노래 CD를 악보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틀어준다.	노래를 주의 깊게 감상한다.	
전개	과제 분담 및 과제 제시	아래의 4가지 과제에 대해 각 모둠별 구성원들에게 과제를 분담한다. ① 다장조의 음계 ② 주요 3화음 ③ 4/4 지휘법 ④ 형식	각 모둠의 구성원들은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읽고 숙지한 후, 과제를 분담한다.	·음악 관련 서적 ·ppt 자료 ·플래시 모듈
	전문가 집단의 과제 조사 및 토론	각 모둠의 동일한 과제를 맡은 구성원들이 전문가 집단이 되어, 교사가 제시한 음악사전 및 교과서 등의 관련 서적을 통해 과제를 조사하게 한 후, 토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교사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과제의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지식을 검색하여 나온 결과를 각 모둠의 전문가 집단은 서로 토론하여 지식을 공유한다.	
	전문가 집단의 교수와 학습	각 모둠의 전문가 구성원들은 각자의 모둠으로 돌아가서, 다른 구성원들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과제에 대한 지식의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각 모둠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모둠의 구성원들을 과제의 순서대로 가르치고 배운다.	과제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과제 정리	과제를 ppt자료나 플래시모듈을 통해 정리해준다.	교사가 정리해 주는 과제의 내용을 다시 숙지하고 학습한다.	
	리듬 익히기와 가사창	제재곡의 리듬을 읽고 리듬치기를 하게 한다. 가사창을 통해 각 성부의 음정을 정확하게 익히게 한다.	정확한 박자로 리듬치기를 해본다 적극적인 자세로 각 성부의 가락을 정확하게 익히도록 한다.	

정리	형성 평가	형성평가를 한다.	형성평가의 문제를 보고 알맞은 정답을 공책에 필기한다.	스스로 형성평가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준다.
	과제 제시 및 차시 예고	차시예고를 한다.	경청한다.	

2. 2차시 본시학습 지도안

학습 주제	아름다운 나의 벗 2부 합창 부르기		차시	2/2 차시
학습 목표	음악적 목표	2부 합창을 아름답게 부를 수 있다.		
	협동학습 목표	동료의 문제해결 활동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다.		
협동 학습 구조	Pair's Check(짝 점검)			
수업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전시 학습 확인	전시 학습인 아름다운 나의 벗을 연주해본다.	아름다운 나의 벗을 가사창으로 불러본다.	
	짝 구성	전 시간에 했던 그대로 4명으로 구성된 모둠에서 2명씩 짝을 짓게 한다.	정해진 짝을 확인한다.	
전개	2부 합창	각 파트의 음정을 정확하게 노래할 수 있게 한다.	정확한 음정으로 화음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부	매끄럽지 못한

		화음감을 느끼면서 2부 합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드럽게 표현한다.	짝들을 찾아서 각각 지도해 주고 의문점이 있으면 교사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게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지휘법 및 모둠 활동	4/4박자의 여린내기의 지휘법을 지도한다. 한 모둠이 4/4박자의 지휘를 하고 다른 모둠은 그에 맞추어 노래하게 한다.	교사의 시범을 보고4/4박자의 지휘법을 익힌다. 적극적인 자세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즐겁게 표현한다.	
	짝 점검	2명 짝지어 2부 합창을 불러보게 한다.	순서를 정해서 한명씩 성부를 바꿔가며 불러본다. 서로 틀리는 부분은 고쳐주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을 해준다.	
	자기효능감 증진	다른 모둠의 짝들을 만나서 같이 연주하게 한 후, 연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원인분석과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해준다.	다른 짝들과 천천히 가락을 연주해 본다. 연주를 못했다고 느낀 학생은 각자 실망하기보다, 올바른 연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는 정서적 각성을 해본다.	
정리	평가	2명의 짝들이 서로 제재곡을 불러보게 한 뒤, 각자 서로 평가를 해보게 한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칭찬과 격려를 서로에게 해본다.	
	차시예고	차시예고를 한다.	경청한다.	

제 3 절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협동학습

학교 음악교육은 음악 활동을 통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 수준별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학습자의 흥미, 요구, 능력을 존중하는 개별화 교육과 학습자가 학습목표, 내용,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학습의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지향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활동을 위한 방법으로 협동학습이 강조되고 있

으며 협동학습에서의 핵심인 모둠별 학습이 중학교 9종 교과서에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둠 활동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활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분석은 협동학습을 구안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교육과정이 6차에 이르기까지 매번 개편될 때마다 새로운 교과서가 나오면 그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계속적인 수정 · 보완의 기회가 있었다. 또한 그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음악과의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여 수업에 적용하게 된다.[18]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지역, 그 학교, 그 학생에게 알맞은 보다 상세한 교육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교과서가 편집되어야 하고 학생중심 활동 또한 강조되고 있으므로 수업의 방법도 당연히 바뀌어서 적용되어야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단편적인 지식중심의 교과서에서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에 맞는 창의력, 사고력도 중시하게 되었다. 또한 학습절차, 방법에서는 학습과정과 다양한 개성에 따라 배울 수 있는 선택형도 수록이 되었다. 학습활동 면에서 6차에서 보다 개별 · 집단 활동과 직접체험, 토론을 유도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교과서의 구성은 곧바로 현장에서 학습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된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새 교육과정은 의미가 없어지고 교육의 목표 또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표 3-1>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5종 교과서 협동학습 현황[19]

	출판사명	단원	협동학습 활동	비 고
1	A사	33	14	· 모둠 활동이 타 교과서 보다 많음. · 협동학습의 형태가 조사 · 발표중심. · 지도서에는 교과서에서 묻는 말에 대한 답이

18) 이상덕(2003).『협동학습 모형을 이용한 중학교 음악수업의 효과적인 지도방법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19-20.

19) 표에서의 단원은 제재곡 중심으로 조사했으며, 출판사 별로 제재곡의 양과, 내용, 형식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협동학습 활동은 각 교과서에서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모둠활동, 그룹활동, 스스로 학습, 탐구학습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협동학습 활동으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제시됨.
2	B사	53	2	· 모둠활동 부분이 가장 적게 수록. · '스스로 학습'의 과제 제시가 소단원마다 제시됨.
3	C사	26	14	·교과서에 나타난 모둠활동이 지도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거나 물음에 답하는 방법으로 제시.
4	D사	50	10	· 교과서에 제시된 모둠활동에 대해 지도서에는 빈칸에 답 넣는 방식.
5	E사	29	2	· 모둠활동은 적으나 학습활동 부분에 협동학습 형태를 이용할 요소가 있음.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6차에 비하여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학생활동을 위주로 하는 학습활동의 양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 교과서의 일부분을 차지하거나 실제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보다는 모둠활동의 의미를 단순히 조사, 토의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대부분이다.[20]

제 4 절 협동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사례 및 분석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를 한 바 있는 Bandura(1977)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선택, 노력의 정도, 지구력 및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인지적 기능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낮은 효능감을 지니고 있는 학생은 그 과제를 피하려고 하고 그들 자신이 효능적이라고 판단하는 학생들은 과제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Schunk(1989)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높은 효능감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학생들보다 더 분발하여 학습하려고 하고 더 오랫동안 지속하며 수행 수준은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21]

이렇게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동학습을 통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

20) 조정은(2002).『음악 수업에서 협동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45-48.

21) 박순화(2004).『학습전략 활용 수업이 학습자의 인지양상에 따라 학업성취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35-36.

1. 협동학습을 통한 리코더 수업

기악학습에서 학생들이 리코더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하고 학습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심을 갖게 되고, 타인과 협동해서 만드는 음악을 통해서 응집력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협동학습을 통한 리코더 수업에서 친구들과 같이 협동적인 체제에서 학습하면서, 가치 있는 음악적 경험이 인식될 수 있게 학생 자신은 악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인천시에 소재한 S중학교 1학년 2개의 학급의 남학생으로 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 수업준비 과정

실험집단에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8차시에 걸친 협동학습의 5개의 모형인 JigsawⅡ, pair's check, STAD, TAI, Team Learning의 정의와 방법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한 다음, 상위수준 1명, 중위수준 2명, 하위수준 1명의 이질적인 학생들로 만들어진 소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협동학습을 할 때 소집단 구성원들의 역할과 과제, 평가와 점수에 관해서 언급을 한 다음, 연습을 한 후 수업에 참여시켰다.

나. 음악적 목표

1~2차시 : 리코더의 역사와 종류 및 올바른 텅잉과 호흡법을 알 수 있다.
3~4차시 : 리코더의 텅잉과 운지법을 익힐 수 있다.
5~6차시 : 리코더의 연주자세와 음계를 익힐 수 있다.
7차시 : 제제곡의 주 가락과 대선율 가락을 리코더 2중주로 연주할 수 있다.

다. 협동학습 목표

1~2차시 :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급동료와 과제를 공유할 수 있다.
3~4차시 : 동료의 문제해결 활동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다.

5~6차시 :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료와 협동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7차시 : 모둠 구성원 모두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를 지원할 수 있다.

라. 사전지도

4명으로 구성된 모둠의 구성원을 편성한다.

마. 자기효능감에 관한 설문실시

협동학습을 위한 준비가 끝난 직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총 88명의 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 사전 검사가 실시되었고, 8차시 수업이 끝난 직후, 자기효능감 사후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정도이다.
자기효능감 척도안은 총 24문항으로 하위요인으로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가 있다.

바. 협동학습 과제 부여

협동학습 과제는 1차시 지도안에 있는 것으로 리코더의 역사와 종류, 호흡법, 운지법을 실험집단 학급에서 소집단 각각의 구성원들과 통제집단의 개인별로 배부가 되었다. 실험집단의 소집단인 경우에는 구성원들끼리 협동학습을 통해 미리 과제를 하고, 통제집단인 경우 개인별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 평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총 8차시의 수업이 끝난 후 리코더를 이용한 기악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에 의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평가는 교사에 의한 평가, 동료에 의한 평가, 자기평가로 한다.

아. 자료처리 및 결과분석

자료처리 및 결과분석을 위해 Excel과 통계프로그램인 SPSS 11.0을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 사전 · 사후검사와 기악 수행평가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자기효능감 사전 · 사후검사의 검증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에 대한 검증은 SPSS 11.0을 사용하였다.

자. 결과

협동학습을 적용한 리코더 수업이 기악 수행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유의미하게 나탔났으며 협동학습이 기악수행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학업성취도(지필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즉 협동학습을 적용한 리코더 수업이 학생들의 학업수행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음을 알 수 있다.

2. 서양음악사 만화그리기

서양음악사를 학생들이 따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재미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서울의 한 학교를 볼 수 있었다. 수업과정부터 수업의 목표, 또 사전 지도와 평가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았다.

가. 수업준비 과정

음악수업이 만화수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양음악사의 내용을 채워 줄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필기할 내용을 인쇄해서 나누어주고 읽어보게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도서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도록 한다.

아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알려주고 모둠을 미리 짜두어 함께 공동 작업할 것을 알려준다

서양음악사는 고전파에서부터 현대 음악에 이르는 내용으로 한정하고 들려줄 음악을

미리 선정하여 악파와 작곡가 별로 한 곡씩 선정하여 짧게 녹음을 하여 재편집 한다.

나. 수업의 목표

고전파에서부터 현대음악에 이르는 음악을 듣고 그 특징과 서양음악의 흐름을 이해한다. 음악을 들으며 자유롭게 음악사를 만화로 표현한다.

다. 사전지도

(1) 학급의 모둠 편성에 준하여 한 모둠에 6~7명 정도로 편성하고 음악실 좌석배치도에 따른다.
(2) 서양음악사에 관련된 인쇄물을 미리 배포하여 충분히 익히도록 한다.
(3) 모둠별로 도서관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별도로 자료를 수집케 한다.
(4) 서양 음악사 중에서 모둠별로 미리 주제를 선정하게 한다.
(5) 모둠별 준비물(색 싸인펜, 필기구, 지우개, 클립)을 준비하도록 한다.
(6) 개인평가가 아니라 모둠평가라는 점을 주지 시켜주고 만화를 잘 그리는가 보다는 내용과 자료 준비도, 참여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숙지한다.

라. 음악사 만화그리기 평가 안내문

(1) 내용 - 수업 시간에 배운 음악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해 음악사와 관련하여 만화로 표현하기
(2) 배점 - 10점
(3) 준비물 - A4용지 각1장 + 모둠 공통 각1장

마. 평가기준 시간

(1) 도입-10분
(2) 내용잡기-5분

(3) 각자 그리기-10분

(4) 함께 그리기-23분

(5) 마무리-2분

바. 방법

그 동안 배운 음악사를 자료로 참고하여 음악을 들으면서 각자 창의적으로 만화로 표현하고(15분) 각 모둠별로 서로 둘러 본 다음 공통의 작품을 하나 만든다(20분).

만화를 잘 그리는 것보다 내용과 모둠 구성원의 참여도와 준비도를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 평가방법

서양음악사 만화그리기 평가			
준비도(자료 활용 능력) 참여도 표현력	10점	10점	자료 활용 능력이 우수하여 세 가지 평가요소 모두 우수함.
		9점	훌륭하게 표현하나 세 가지 평가요소 중 한 가지 부족.
		8점	표현에 자신감이 없으며 세 가지 평가요소 중 두 가지 이상이 부족.
		7점	결석 등의 이유로 평가에 참여를 안 함.

아. 서양 음악사 만화그리기 분석

수업이 재미있고 교육적인 효과가 높다. 협동학습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이뤄낸다는 성취욕과 친구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은 장점이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열심히 하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서 부작용의 경우도 적지 않다.

요즘처럼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학생들에게 협동학습이 쉽지는 않지만 전통적 학습만을 고집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의 접근을 꾸준히 시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음악신문 만들기, 노래에 맞춰 여러 가지 리듬 만들기, 판소리 창극 만들기 등의 협동학

습이 있다.[22]

22) 김원선(2002). 전게서 pp.29-32.

제 4 장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최근 새로운 교수 · 학습 방법으로써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협동학습이 음악과 교육에 어떤 유용성을 갖는지 살펴보고, 협동학습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음악과의 특성에 잘 부합할 수 있는 모형을 선택하여 음악과 수업안을 적용해보고 음악과 수업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고, 또한 적용된 모형의 협동학습으로 인해 증진시킬 수 있는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학생들의 음악활동과 음악능력으로 지금까지 습득되어진 학습을 기반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학습 방안인 협동학습의 지도방안과 자료를 탐색하고 서로 교환하여 효율적인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실제 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여 예시하였다.

또한 협동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사례 및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수업방식의 음악수업을 소개하였고,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협동학습은 학생들의 음악 수업의 흥미와 나아가 창의성과 사고력을 개발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킴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수업의 방안들이 그렇듯이 협동학습도 그 자체로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협동학습을 활용한 음악과 수업에 있어 예상되는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특히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를 학생들의 협동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 하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음악수업에서 협동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연구에 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었다.

첫째, 협동학습을 적용한 음악수업이 학생들의 학업수행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학업성취, 문제 해결력, 음악성, 연주기술,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음악과 협동학습의 모형과 전략은 음악수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음악과 협동학습의 다양한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현장교사에게 다양한 수업 전략을 제공하여 준다.

넷째, 음악과 협동학습의 다양한 전략을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

을 파악하여 개개인의 음악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

다섯째, 음악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음악수업에서 협동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협동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음악과의 다른 영역에 적용해 보고, 다른 대상과 다른 교과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협동학습의 효과로 나타나는 학습동기인 자기효능감 이외에 여러 가지 학습동기 등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협동학습의 다양한 수업개발안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수업은 학생들의 개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채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구조들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꾸준한 관심과 다양한 학습내용 방법 개발, 음악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자신감, 흥미유발을 위한 끊임없는 개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은 음악을 지각하고 반응하게 함으로써, 음악의 아름다움과 그 예술적 의미를 통찰하는 심미적 체험이 일어나도록 돕는 교수 · 학습지도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교사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더 잘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 자신의 능력에 대해 호의적인 판단을 받는데 치중을 하기보다는 학습자체를 목적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문제처리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며, 미래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음악을 통해 배양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Ⅰ. 단행본

교육부, 『제7차 음악 교육과정 개정 연구』, 교육부, 1997.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7.

교육부, 『중학교교육과정해설 Ⅳ』,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9.

권덕원 외 3명,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교육과학사, 2005.

김진수, 『학업성적 증진법』, 기리원, 1988.

노안영 외 1명, 『성격심리학』, 서울:학지사, 2005.

박성익, 『학습전략의 탐구 동향, 학교 학습 탐구』, 교육과학사, 1988.

변영계 · 김광휘,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0.

이달호, 『교육 심리학』, 서울:학문사, 1987.

이동원, 『인간교육과 협동학습』, 성원사, 2002.

이성호, 『교육과정과 평가』, 양서원, 1990.

이용일, 『음악교육 개론』, 현대악보출판사, 1979.

이홍승,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5.

이홍우, 『인지학습의 이론』, 서울:교육과학사, 1986.

정문성, 『협동학습, 열린 교육 운영과 지도의 실제』, 서울교육대학교 초등 교원연수원, 1997.

정문성,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02.

조성자, 『인지양식과 학습형태가 음악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비교』, 서울사대교육연구소, 1981.

최영권, 『수준별 교육과정과 열린교육의 만남』, 성원사, 1998.

Ⅱ. 외국문헌

Aronson, A, Blaney, N., Stephan, C., Sikes, J., & Snapp, M. The Jigsaw Classroom. CA: Sage pub, 1978.

Bandura A,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교육과학사, 1999.

Bandura A,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과학사, 2001.
Bandura 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1977.
Gagné, R. M., &Briggs, L. J. Principles of instruction design. New York : Holt, Linehart and Winston, 1974
Johnson, D. W., & Johnson, R. T. Learning together and alone : Cooperation, competition, and individualization, NJ: Prentice-Hall, 1975.
Johnson, D. W & Johnson, R. T., Holubec, E. J., & Roy, P, 1984. Circles of learning.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Johnson, D. W., & Johnson, R. T. Learning together and alone. Needham Heights: Allyn and Bacon, 1994
Slavin, R. Cooperative Learn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J: Prentice-Hall, 1990.
Sharan, S. Cooperative learning. Theory and reseach. New York: Praeger, 1990.
Piaget, J.,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m. Gabain, Tras.), N.Y.: Free Press, 1965.

Ⅲ. 학위논문

권금애, “협동학습 모형을 도입한 음악수업지도안 개발”,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수동, “협동학습의 효과 분석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김원선, “협동학습을 적용한 다양한 음악수업 지도안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은순, “영어과 협동학습이 성취목표 지향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형신, “협동학습을 통한 초등학교 기악지도법 연구”,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순화, “학습전략 활용 수업이 학습자의 인지양식에 따라 학업성취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송치문,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중학교 전통음악감상 지도방안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경미, “음악 수업의 협력적 개별화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상덕, “협동학습 모형을 이용한 중학교 음악수업의 효과적인 지도방법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오윤경, “협동학습을 통한 리코더 수업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 연구”, 이화여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학진, “협동학습을 적용한 음악감상 지도방법 연구”, 전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조정은, “음악 수업에서 협동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최경미, “협동학습 활동을 통한 단소지도 방안 연구”, 용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하정효, “ICT 활용 수업 유형이 영어 학습 태도, 학업 성취도 및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